

# 존슨, LIV 골프 원년 최우수선수



▲ 지난 9월 LIV 인비테이셔널 4차 대회에서 우승한 더스틴 존슨 사진=irishmirror.ie

더스틴 존슨(미국)이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LIV 골프) 원년 최우수 선수로 확정되며 보너스 1천 800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IV 골프는 이날 존슨이 지난 10월 끝난 LIV 인비테이셔널 6차 대회에서 공동 16위에 오르면서 최우수 선수 포인트 121점을 쌓아 남은 2차례 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최우수 선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슨은 LIV 골프가 약정한 최우수 선수 보너스 1천800만 달러를 별도로 받는다. 존슨이 받은 1,800만 달러는 1년 중 4개월 동안 6개 경기만 뛰고 확보한 금액이다. 지난해 PGA 투어의 최우수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 선수' 프

로그래프(PIF)' 1위 타이거 우즈(미국)의 상금이 800만 달러였다

존슨은 LIV 골프에서 한 차례 우승하며 상금으로 이미 1천270만 달러를 벌었다. 존슨은 LIV 골프로 옮길 때 받은 빚돈은 뼈대라도 공식적으로 챙긴 돈만 3천만 달러가 넘는 셈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4차례 우승하면서 벌어들인 통산 상금 7천489만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쓸어 담은 것이다.

존슨은 이적할 때 빚돈으로 1억2천 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한때 PGA 투어 세계랭킹 1위에 오른 톱스타로 2020년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를 제패했다. 최근 부상 등으로 성적이 곤두박질치자 동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LIV 시리즈로 등지를 옮겼는데 화려하게 부활하며 돈방석에 앉았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후원을 받아 올해 새롭게 출범한 LIV 골프는 '전의 규모'에서 상상을 초월한다. 간판선수들을 여럿 빼앗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2022~2023년 시즌 보너스 증액과 특급 대회 추가 개최 등으로 '맛볼'을 놓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KPGA 코리안 투어 같은 PGA 투어

박세리 이후 한국 여자 선수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수많은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골프 팬들은 PGA 투어보다 LPGA 투어에 더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11일 'JTBC골프'에 따르면 전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열린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최종일 리더보드 상단에는 마치 KPGA 코리안 투어처럼 한국 선수들의 이름이 즐비했다. 우승자 김주형을 비롯해 공동 4위 김성현(24), 단독 7위 임성재(24), 공동 8위 김시우(27) 등이 '톱10'에 올랐고, 이경훈(31)과 안병훈(31)이 각각 공동 37위, 공동 44위에 자리하며 PGA 투어에 K남자골프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대회 중계방송을 통해서도 K남자골프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주형이 우승을 확정하자 현장에서 지켜보던 임성재, 이경훈, 김성현 등 '코리안 브러더스 형들'은 '막내'에게 다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PGA 투어 통산 2승의 임성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 남자골프의 핵심이다.



▲ 김주형왼쪽이 지난 10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에서 열린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우승한 뒤 임성재가운데, 김성현오른쪽의 축하인사를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여기에 스무 살의 젊은 피 김주형이 가세했다. 김주형은 지난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투어 첫 우승을 신고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슈라이너스 오픈에서 20세 3개월의 나이로 2승을 달성하며 우즈의 최연소 2승 기록(20세 9개월)까지 갈아치웠다.

PGA 투어 통산 3승을 기록 중인 김시우, 올 시즌 PGA 투어 데뷔 후 3경기만에 톱 10에 진입한 김성현, AT&T 바이런 넬슨 2연패의 주인공 이경훈과 투어에 복귀한 안병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과거 PGA 투어에 진출 자체가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느새 PGA 투어에 K남자골프의 위상이 깊게 스며들고 있다.

#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KUNI 횡집으로 오세요!!



(714) 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 KUNI SASHIMI HOUSE

OPENING HOURS  
Mon-Sat: 3PM-12AM  
Sun: 3PM - 10:30PM